

HEADLINE NEWS

자가용 운행 자제를 홍보하는 주간행사 실시 (미시건주: 트래 버스 시티)

미국 미시건주의 트래버스 시티(Traverse City)는 자가용 이용 자제를 홍보하는 행사를 1주일간 벌일 예정이다. 「Smart Commute Week」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10년째 지속되어 온 것으로, 시민들에게 자가용 대신에 자전거, 도보, 카풀,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권장하여 자가용 교통량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역의 대중교통 운영담당기관인 'The Bay Area Transportation Authority'는 행사 기간 중 자가용 운행을 포기한 시민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버스 이용 권장을 위해 시민들에게 1일 버스 무료승차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단체별로 자가용 운행 자제 성과여부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Commuter Cup Challenge" 행사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러한 자가용 대체수단의 활성화가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건강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www.mlui.org/transportation/fullarticle.asp?fileid=16706)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도시조명계획 수립 (헬싱키)
- ② 스마트성장을 위해 '도시마을구역'을 새로운 용도구역으로 추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시)
- ③ 테러방지 및 시민안전을 위해 대도시권 전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 (볼티모어)
- ④ 지역정보 계간지 발간과 무선랜 기지국 설치 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요코하마)

도시환경

- ⑤ 시의 새로운 명소 '밀레니엄 공원' 개장 (시카고)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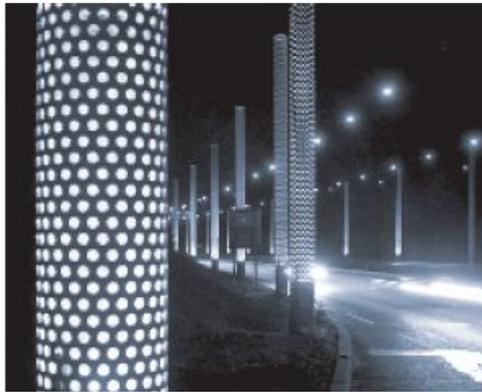
- ⑥ 대규모 하절기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애틀랜타)
- ⑦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정운전자' 프로그램 실시 (호놀룰루)
- ⑧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대비책 강화 (애틀랜타)
- ⑨ 웹사이트를 통해 州전역의 도로공사 정보 제공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시)

행재정

- ⑩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 교육 실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시)
- ⑪ 도시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도시경영자문회의 설치 (오사카)
- ⑫ NPO에 위탁해 구민종합상담창구 개설 (동경)
- ⑬ 都內 유적지도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동경)

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도시조명계획 수립 (헬싱키)

최근 핀란드 헬싱키(Helsinki)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도시조명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단순히 도시의 조명 밝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질을 높여 보다 아름다운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도시조명계획이 범죄예방, 야간 통행 등에 도움을 주는 조명의 일반적인 용도 외에도, 매력적인 도시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hel.fi/english/current/LOW_HelsinkiNews.APRIL.pdf)

② 스마트성장을 위해 ‘도시마을구역’ 을 새로운 용도구역으로 추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Asheville)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스마트성장을 위한 용도구역으로 ‘도시마을구역(Urban Village District)’을 최근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남쪽에 버려진 공장용지가 새로 추가된 ‘도시마을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3~5년간 1억5천만 달러가 이 지역에 투입되어 개발될 예정이다. 시는 전체 면적 35에이커에 이르는 이 지역에 주거, 상업, 오피스, 공공시설 등을 모두 근거리에 배치하여 자동차 이용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커뮤니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cgi.citizen-times.com/cgi-bin/story/editorial/55634)

3 테러방지 및 시민안전을 위해 대도시권 전역에 감시카메라 설치 (볼티모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는 24시간 가동되는 감시카메라를 시내 주요 지점에 곧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를 광역적 네트워크 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며, 총 2백만달러를 투입하여 대도시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모의 광역적인 시행은 미국 내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안보부의 재정지원 아래 실시되는 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테러예방 대책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범죄예방 등의 시민안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감시카메라는 우선 대중교통시설물 및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상황 모니터링용 카메라와도 연계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www.baltimoresun.com/news/local/bal-te.md.cameras10jun10,0,2211108.story?coll=bal-local-headlines)

4 지역정보 계간지 발간과 무선랜 기지국 설치 등으로 지역활성화 도모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시의 음식점 업주들이 지하철 미나토미라이선 개통, 토우큐토우 요코선(東急東横線)역 폐지로 인해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노계(野毛)지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지역의 정보·문화를 소개하는 계간지 창간, 주변의 신사(神社)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음식점들은 무선랜 기지국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전자화폐 형식의 지역통화를 사용하는 이벤트 등도 구상하고 있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20c3b2005220.html)

도시 환경/도시 교통

세계도시동향

5 市の 새로운 명소 ‘밀레니엄 공원’ 개장 (시카고)

미국 시카고市는 市の 새로운 명소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을 최근 개장했다. 市는 ‘건축과 문화의 도시’라는 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원에 1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세우고, 공원 곳곳에 유명 조각가의 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밀레니엄 공원’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Edward Uhler에 따르면, 이 공원은 레크리에이션 기능뿐 아니라 市の 문화공간으로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밀레니엄 공원’ 건설은 약 6년 전 Richard Daley 市長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건설비로 총 4억5천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www.chicagotribune.com/news/specials/millennium/chi-millennium-openingday-story. story)

6 대규모 하절기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 (애틀랜타)

애틀랜타市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州정부 및 지방 정부의 교통안전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100 Days of Summer HEAT」라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과속 운전,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의 교통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인접지역의 다양한 부서가 전례없이 동시에 참여하는 광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교통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iz.yahoo.com/prnews/040618/clf009_1.html)

7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정운전자' 프로그램 실시 (호놀룰루)

미국 하와이주 교통부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운전자 (Designated Driver)'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소의 참여로 시행되고 있는데, 동행한 일행의 운전을 책임지는 '지정운전자'가 해당 업소를 방문할 경우, 업소측에서 이 운전자에게 무료 음료수, 할인쿠폰, 무료 주차이용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약 30여개의 유흥업소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개 라디오 방송사도 음주운전 자제를 홍보하는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에 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33명이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망자가 68명이나 되어, 그동안 음주운전 예방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www.state.hi.us/dot/publicaffairs/pressrelease/2004/04-334.htm)

8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대비책 강화 (애틀랜타)

미국 애틀랜타시의 대중교통 담당기관인 'MARTA(Metro Atlanta Rapid Transit Authority)'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대비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MARTA'는 우선 폭발물 설치에 이용될 수 있는 휴지통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으며, 지하철역사 등에서의 경비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폭발물 탐지견의 수를 늘릴 예정이며, 폭발물 제거 관련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MARTA'는 최근 들어 테러 대비 훈련을 2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올 연말에도 추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www.accessnorthga.com/news/ap_newfullstory.asp?ID=39355)

9 웹사이트를 통해 卅전역의 도로공사 정보 제공 (펜실베이니아州: 해리스버그市)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교통당국은 장거리 통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卅전역의 주요 도로에서 수행중인 도로공사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했다. 이 웹사이트는 도로공사 지점에 대한 자세한 위치와 함께 해당 구간의 교통규제 상황, 공사기간, 관계자의 연락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운전자들이 여행계획 수립시 이러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구간에서의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ww.95revive.com/news_story.cfm?news_item=238)

10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 교육 실시 (버지니아州: 리치먼드市)

미국 버지니아州 교통부는 卅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市 소방당국에 의해 1985년에 개발된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재난관련 기본상식, 화재관련 안전조치 사항, 응급처치 요령, 재난 직면시의 심리상태 등이며, 이 밖에 卅교통부와 직접 관련된 보안 및 테러 대응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지원자에 한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올 가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www.virginiadot.org/infoservice/news/is-newsctr.asp)

④ 도시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도시경영자문회의 설치 (오사카)

일본 오사카市는 시정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시책, 그 외 시정에 대하여 도시경영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市の 도시경영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자문회의는 학자, 기업인, 저널리스트, 공인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논의, 의견교환을 하여 시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앞으로 도시경영회의는 이 자문회의의 의견과 제언을 통하여 市가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처하고 도시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분권시대에 맞는 자주자립의 도시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www.city.osaka.jp/media/shisei/2004_6/month/index.htm)

④ N P O 에 위탁해 구민종합상담창구 개설 (동경)

일본 東京都 치요다(千代田)區는 비영리조직(N P O)에 위탁하여 법률문제와 납세, 소비자 문제 등 區民의 다양한 상담에 대응하는 종합창구를 개설하였다. 이는 구민의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종합상담창구를 N P O에 전면 위탁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위탁처는 S O S 종합상담그룹이며, 상담원으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택지건축 취급관계자, 임상심리사 등 약 70명의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다. 구민과 區內 중소기업 근무자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사전예약제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재판과 등기 등은 유료이다.

(www.nikkei.co.jp/news/retto/20040512c3b1204812.html)

都内 유적지도정보 홈페이지에 게재 (동경)

일본 東京都에는 현재 5,600개소 이상의 유적(遺跡)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적 정보를 소개하는 都의 유적지도정보는 지금까지 책자와 CD-ROM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東京都 유적지도정보」를 都의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都内の 유적분포 상황과 개별유적의 개요 등을 검색할 수 있다. 都는 지정 사적(史跡)의 일람과 문의처 등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6/20e6n400.htm)